

건축계소식 / 75

현상설계 / 82

해외잡지동향 / 100

건축계소식 archi-net

2002 제4회 건축사진 여름 워크숍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한국건축사진가회(회장 김경호)에서 주최하는 2002년 건축사진 워크숍이 오는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에서 열린다. 이번 워크숍 이슈는 건축과 사진이 서로 가지는 것은 무엇인가? 건축은 이미지를 가지고 사진은 건축을 가지는가? 이다. 국내 대학(원) 건축과, 사진학과 재학생 및 건축사진에 관심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며, 사진 이론과 건축사진의 실질적인 내용을 접할 수 있는 기회이다.

- 프로그램: 건축사진의 이해, 건축사진 만들기, 실내건축사진 만들기, 모형사진 만들기, 메타건축사진 이야기, 비늘 구멍사진 그 원초적 수단으로 여행, 누드 재미난 이야기, 디지털 살펴보기, 사진에 나타난 건축, 건축이 가지고자 하는 사진, 이미지로서 건축사진
- 건축사진가회 강사: 김경호(CAMP스튜디오), 김재경(사진가), 김재윤(프리랜서), 김태오(간스튜디오), 문정식(프리랜서), 박영채(프리랜서), 유현민(사진가), 이인미(프리랜서), 염승훈(프리랜서), 조명환(프리랜서)
- 초빙강사: 강 혁(경성대학교 건축도시공학부 교수), 진동선(사진비평가), 최봉림(사진비평가), 백성현(사진가)
- 신청기간: 2002년 6월 22일 마감(입금 선착순)
- 모집정원: 60명
- 참가비: 12만원

- 입금계좌: 조흥은행
323-04-717561(예금주 김경호)
- 문의: 02-2266-9338
archiphoto.pe.kr

제7회 한국목조건축학교 개최

7월 6일까지 참가신청

한국목조건축협회와 미국임산물협회 한국사무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7회 한국목조건축학교의 일정이 확정되어 오는 6월 24일부터 7월 6일까지 참가신청을 받는다. 강사는 장상식(충남대학교 임산공학과 교수), 정태욱(미국임산물협회 한국사무소 이사), 최원화(주·나무와 삶 이사), 김민배(라파즈석고 기술서비스팀), 권순관(대림이앤씨·주 대표이사)씨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교육에서 시공실습은 충남 공주시 이인면에 소재한 '사랑이 있는 집'에서 약 50평 규모의 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야간에는 다음날 실습할 내용의 이론을, 낮에는 직접 시공 실습에 참여함으로써 2주간이라는 단기간 동안 경골 목조건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한다.

- 문의: 미국임산물협회 한국사무소
(02-722-3685),
사단법인 한국목조건축협회
(02-554-0611)
www.woodhouse.or.kr

2002 월간 플러스 해외건축기행단 모집

네덜란드와 베를린의 현대건축과 변화

월간 플러스는 네덜란드의 10여 개 도시와 독일 베를린의 최신 현대 건축물들을 집중적으로 돌아봄으로써 현대건축의 흐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두 나라의 면모를 직접 보게 될 해외건축기행단을 모집한다.

현재 나라전체가 현대건축의 실험실로 쓰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네덜란드는 각종 도심 재개발사업과 단지개발로 단위건축물 구축에 다양하고 실험적인 도전정신으로 무장한 젊은 건축가들이 뛰어들고 있으며, 조경 및 스퀘어(Square)개발에도 주목할 만한 개념을 선보이고 있다. 또 다른 답사지인 베를린은 통독 이후 '현대건축의 전시장'이라 불리울 만큼 세계적인 건축가들의 작품들이 속속 세워지고 있는 곳으로, 이는 분단에서 통일 이후의 도시변화와 재건, 그에 따른 건축적 변화를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나아가 이 두 나라를 통해 우리의 미래상황을 간접적이거나 떠올려보게 되는 여행이 될 것이다. 답사인원은 약 15명 이내로 구성할 것이며, 선착순 접수 마감으로 자세한 일정과 경비는 플러스 홈페이지(www.pluszine.co.kr)와 등록자 개인에게 통보된다. 개별 작품에 대한 해설은 천의영(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으며, 현지 유학생들이 가이드로 참여할 예정이다. 답사 예정지와 작품목록은 아래와 같으며, 현지 사정에 따라 일부 건축물은 추가, 생략될 수 있다.

- 주제: 네덜란드와 베를린의 현대건축과 변화
- 일정: 2002년 8월 1일 ~ 8월 11일 (10박 11일 예정)
- 참가인원: 15명(선착순 마감)
- 참가비 최종납부기한: 2002년 6월 20일

- 강연 및 오리엔테이션: 2002년 7월 27일(여권지참)
- 참가경비: 250 만원 내외(정확한 금액은 추후 공지)
국제선 항공료, 현지 항공 및 철도, 전세버스 등 교통비, 숙박비, 식비, 입장료, 강사료, 보험료, 공항세, 자료집 포함, 기타 차지 및 팁은 별도
- 해설: 천의영 (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교수)
- 문의: 플러스 문화사 편집부/ 최충욱 기자
T. 02-563-4322/ F. 02-557-4896/
www.pluszine.co.kr/
grearch@pluszine.co.kr

- 여행도시: 답사 건축물 정보는 차후 자료집으로 제공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 Byzantium(Rem Koolhaas)
- Vincent Van Gogh Museum extension (Kisho Kurokawa)
- Science Center, New Metropolis (Renzo Piano)
- IJ-Plein(Rem Koolhaas)
- IJ Tower & Shopping Center/ Brazilie(Neutelings-Riedijk)
- KNSM Island Tower(Wiel Arets)
- WoZoCo Housing(MVRDV)
- Piet Hein Tunnel Building/ Bridge Master's House(Van Berkel & Bos)

힐베르섬

- VPRO head office(MVRDV)
- RVU office(MVRDV)
- Print workshop(Neutelings-Riedijk)

우트레흐트

- Double House(2000, MVRDV)
- Utrecht University Minnaert Building(Neutelings-Riedijk OMA)
- Utrecht University Educatorium(Rem Koolhaas, OMA)
- Utrecht University Museum(Koen van Velsen)
- Utrecht University NMR facilities(Van

Berkel and Bos)

- Utrecht University, Faculty of Management and Economics (Mecanoo)
- Vredenburg Music Center(Herman Hertzberger)
- School for Fashion and Graphic Industry(Erick van Egeraat)
- Schr der House(Gerrit T. Rietveld)

아메르스푸트

- 50/10kv distributing substation(Van Berkel & Bos)
- Karbouw Office & Workshop(Van Berkel & Bos)

로테르담

- Megacinema(Koen van Velsen)
- Erasms Bridge(Van Berkel & Bos)
- The Netherlands Architecture Institute(Jo Coenen)
- Kunsthall(Rem Koolhaas, OMA)
- Natural History Museum(Erick van Egeraat)
- Quay Landscape+Bridge Watcher's House(Bolles-Wilson)
- New Luxor Theatre(Bolles-Wilson)
- KPN Tower(Renzo Piano)

덴 하그

- Benelux Merkenburo(Herman Hertzberger)
- The Hague City Hall and Library(Richard Meier)
- Ministry of Social Welfare and Employment(Herman Hertzberger)
- National Dance Theater(Rem Koolhaas)
- The Hague Apartment Building(Henri Ciriani)

델프트

- Library of the Delft Univ. of Technology(Mecanoo)
- Open-air theatre(MVRDV)

브레다

- Chasse Theatre(Herman Hertzberger)
- Fire Station(Neutelings-Riedijk)

질랜드 우테르셀데

- Neeltje Jans Water Pavillion, freshH2O EXPO(NOX+Oosterhuis)

마스트리흐트

- 20 Apartment for the Elderly(Wiel Arets)
- Masstricht Academy for the Arts and Architecture(Wiel Arets)
- Ceramic Office Building(Wiel Arets)
- House/ Studio Arets-Sijstermans (Wiel Arets)

발스

- Police Station(Wiel Arets)

복스텔

- Police Station(Wiel Arets)

힐렌

- AZL Pension Fund Headquarters (Wiel Arets)

독일/베를린

- Portzdamer Platz Redevelopment Daimler City(Renzo Piano+Christoph Kohlbecker)
- Portzdamer Platz Redevelopment Sony Center(Helmut Jahn/Master Plan: Georgio Grassi)
- Jewish Museum(Daniel Liebeskind)
- The New German Federal Parliament, Reichstag (Sir Norman Foster)
- Foundation Topography of Terror (Peter Zumthor)
- DG Bank(Frank O. Gehry)
- Galleries Lafayette(Jean Nouvel)
- Embassy of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Rem Koolhaas)
- Embassy of the Republic of Austria (Hans Hollein)
- Neues Museum(David Chipperfield)
- Berlin Chamber of Commerce (Nicholas Grimshaw)

- Olympic Velodrome & Swimming Halls(Dominique Perrault)
- Baumschulenweg Crematorium (Axel Schultes+Charlotte Frank)
- Heinz-Galinski School(Zvi Hecker)
- Stella Musical Theater(Renzo, Piano)
- Housing at Stresemann Strasse (Zaha Hadid)
- Sony Center(Helmut Jahn)
- Photonikzentrum(Sauerbruch & Hutton)

싱가포르 / 인도네시아 건축기행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사이프로콘은 싱가포르 현지 건축인, 월간 건축 Poar(협찬)와 신차원여 행사와 함께 <싱가포르/인도네시아 건축기행>을 기획,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매주 수요일 출발한다. 현지 전문 건축인의 설명과 안내로 이루어질 이번 기행은 싱가포르의 센토사섬, 주룽새공원 등과 인도네시아의 원주민 마을, 중국사원 등을 관광할 예정이다.

문의: 0502-100-1011

www.cyprocon.com

서울건축학교 2002 여름워크숍

변화의 시작과 새로운 풍경 / 세계속으로 - 'reciting a city : BUSAN'

서울건축학교(sa)는 그동안 4회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촌락과 중소도시들에

대한 작업들을 통하여 이 시대 이 땅의 삶의 모습과 그 도시, 건축적인 행태를 그 현장으로부터 탐구해왔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2002년 여름 워크숍은 부산이라는 거대도시를 대상으로 'reciting a city : BUSAN'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부산은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공존하는 도시이다. 그것은 격동하는 역사의 적층을 지닌 추억의 박물관이기도 하며, 미래를 향한 급격한 변화와 외부로부터의 충격이 일상속에 흡수되어가는 새로운 세계이기도 하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들의 상관 관계 속에 부산 속에는 수많은 이질적인, 다양한 삶의 흔적들이 내재되어 있으며, 그 내면적인 충돌과 흔재는 수많은 독특한 도시적 현상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성적인 영역에 기초하지 않은 이러한 현상은 오히려 그 도시 특유의 다양한 공간적인 특성과 논리를 내포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부산이 지니는 도시공간적, 장소적 특성에 관한 접근은 참여 건축가들의 현대도시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담론을 통하여 그 풍경 속에 내재된 도시적 가능성과 그 장소적 의미를 부각시키게 될 것이다. 이러한 건축가들의 집단적인 작업은 부산이라는 도시를 새로운 관점으로 그려내고 동시에 우리의 대도시에 대한 도시건축적인 접근 방법들을 모색하는 활발한 논의와 실험의 장이 될 것이며, 그것을 통해 현재의 도시현상과 그 변화에 대응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또한 부산과 같은 거대도시는 그곳에 내포된 한국성이나 지역성을 논하기 이전에 이미 고유한 그 자체의 도시적 특질을 지니며, 그것은 오히려 세계 혹은 아시아의 다른 항구 도시들과 관련된 작업들을 통하여서도 보다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을 것이다.

- 프로젝트 대상 : 부산
- 기간 : 2000. 08. 03.(토) ~ 2000. 08. 10. (토) 7박 8일
- 참가대상 : 국내외 건축관련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 150명(선착순) 내외

(일본 쓰쿠바대 건축과 학생 10명포함)

- 여름건축학교장 : 김인철/아르키움
- 코디네이터 : 한만원 (한도시건축) + 강혁(경성대건축과)
- 참가건축가 : sa건축가 20명내외 + 부산건축가3인 + 외국건축가1인
- 초청강사 : 강 혁(경성대건축과), 김애령(부산비엔날레전시감독), 외국건축가 1인
- 전시회 : 2002. 08. 17.(토) ~ 2000. 08. 24.(토) / 서울건축학교 전시실
- 참가접수 : 인터넷 홈페이지
www.saschool.or.kr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제정 공고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이 마침내 지난 6월 5일 제정 공고 되었다. 이 대가기준은 지난 99년 2월 보수카르텔일괄정비법 시행으로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덤핑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성행해 지난해 의원입법으로 건축사법을 개정, 새 기준을 제정토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새로 제정된 대가기준에서는 설계·공사감리업무 이외에 건축사가 수행해야 할 업무영역을 확대 구체화하고, 설계·공사감리업무에 관한 단계별 업무내용을 세분화해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고 있다. 우리 협회는 이 기준과 함께 적용방법 등을 바인더 형태로 제작하여 전회원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제13회 김수근 문화상

「제주 서귀포월드컵경기장」 수상

올해로 13회를 맞이하는 김수근 문화상의 수상자는 김수근문화재단 건축전문위원회(김봉렬/한국예술종합학교, 김준성/경기대학원, 이종호/스튜디오메타 이상 3인)와 심사위원단(김병현/창조건축, 민현식/한국예술종합학교, 박길룡/국민대)에서 추천된 9개의 작품중에서 의재미술관/김종규+조성룡, 제주서귀포월드컵경기장/황일인 2작품이 최종심사 후보작으로 선정되었으며, 문화상 심사위원회(김병현/창조건축, 민현식/한국예술종합학교, 박길룡/국민대 이상 3인)에서는 수상작으로 「제주서귀포월드컵경기장/황일인」을 최종 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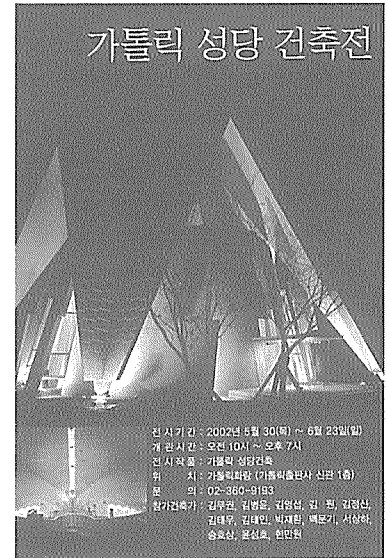
김수근문화상은 건축가이자 공간의 설립자인 고 김수근선생의 4주기를 맞이한 1989년 김수근 문화재단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이 상은 건축가이면서도 남다른 애정으로 공간을 축으로 삼아 이 땅의 문화예술의 열매를 맺기 위해 열의를 쏟았던 고인의 뜻을 기리며 건축, 미술, 공연예술의 세 분야에 걸쳐 당해 년도에 괄목할 만한 활동을 한 작가의 업적을 평가하여 수상하여 오다가 1997년부터 건축상만을 시행하여 오고 있다.

시상식 및 수상자 기념강연회는 2002년 6월 14일 오후5시 공간사옥마당에서 개최됐다.

작년 12회 수상자인 자로 선정된 「CAIS 갤러리/김종규」의 건축전시회는 6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공간사옥전시장에서 열린다.

가톨릭 성당 건축전

가톨릭화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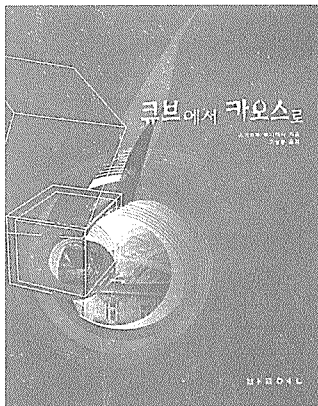


가톨릭화랑에서는 신앙의 자세와 의식을 반영한 가톨릭 문화의 표상으로서 다양하게 변천해 온 한국의 성당 건축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건축가의 최근 작품을 볼 수 있는 전시회를 마련하고 있다.

- 기간: 2002년 5월 30일~6월 23일
- 시간: 오전 10시~오후 7시
- 작품: 가톨릭 성당건축
- 장소: 가톨릭화랑(가톨릭출판사 신관 1층)
- 참가건축가: 김무권, 김병윤, 김영섭, 김 원, 김정신, 김태우, 김태인, 박재환, 백문기, 서상하, 승효상, 윤성호, 한만원
- 문의: 02-360-9193

◇ 큐브에서 카오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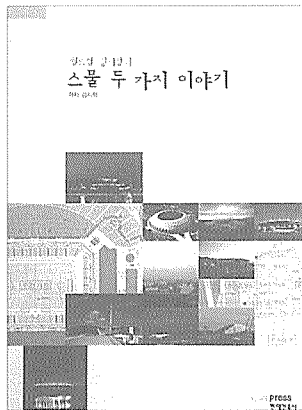
두 세기를 걸쳐 사는 사람은 많지 않아서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 세기를 맞는 경험을 갖는 것은 큰 행운이다. 또한 그 만큼 불안하기도 하다. 특히 19세기에서 20세기로 오면서 면모를 새롭게 한 건축에서 세기말 현상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는 무척이나 흥미롭다. 저자는 이 책에서 쉽게 현대건축의 흐름을 설명하고 있다. 큐브와 카오스라는 두가지 개념을 토대로 현대건축을 해석하며, 다가오는 미래를 예측한다. 저자는 21세기의 큰 흐름으로 에콜로지 와 정보사회를 들고, 이에 대응하는 자연주의 건축과 테크놀러지 건축을 21세기를 맞이하는 건축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있다. 더욱이 누구나 궁금해 하지 않는 21세기 건축의 먼 미래에 대해서도 건축역사의 순환성이라는 견해에서 2010~20년대에 네오 아르누보를 2030~40년대에는 네오 퓨리즘을 과감히 예견하고 있다.



고성룡 역/ 스기모토 토시마사 저/ 229쪽 / 4×6변형/1만6천원/도서출판 발안 펴냄 (02-929-3546)

◇ 월드컵경기장의 스물 두 가지 이야기

1998년 경기장 건설초기부터 월드컵의 시설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조직위원회 김시형 건축전문위원(건축사)이 그 간의 경기장 준비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내용과 건설과정의 뒷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집 「월드컵경기장의 스물 두 가지 이야기」를 펴냈다. 10개 경기장 소개로 시작되는 이 책은 축구경기장에서 필수 요소인 잔디, 전광판, 조명, 음향과 같은 설비를 비롯하여 동선계획, 파난계획 등 경기장 건축의 필수적인 사항과 대회 이후의 활용방안, 건설과정에서의 뒷 이야기 등에 대해 다양한 사진과 삽화를 이용하여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워밍업, 전반전, 후반전, 연장전의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워밍업에서는 10개 월드컵경기장의 건축적 의미와 건설과정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했고, 전반전과 후반전에서는 이 책의 본론인 월드컵경기장에 대한 스물 두 가지 건축이야기를, 연장전에서는 부록격인 10개 월드컵경기장의 건축개요와 위치도, 배치도를 실고 있다.



김시형 지음/ 240쪽/1만1천원/CA Press 현대건축사 펴냄(02-549-6444)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86-7475
- 강북구건축사회/903-2030 · 강서구건축사회/661-6999
- 관악구건축사회/877-4844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864-5828 · 금천구건축사회/659-1588
- 노원구건축사회/937-1100 · 도봉구건축사회/990-8720
- 동대문구건축사회/967-6052 · 동작구건축사회/815-3026
- 마포구건축사회/333-6781 · 서대문구건축사회/338-5552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성동구건축사회/292-5855
- 성북구건축사회/922-5117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694-8040 · 영등포구건축사회/632-2143
- 용산구건축사회/717-6607 · 은평구건축사회/388-1466
- 종로구건축사회/725-3914 · 중구건축사회/231-5748
- 중랑구건축사회/437-33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6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56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 고양지역건축사회/(031)963-8902 · 광명건축사회/(02)684-5845
- 구리지역건축사회/(031)56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2)664-1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1-7987~8
- 시흥지역건축사회/(031)318-6713 · 안산건축사회/(031)48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1)449-2698 · 의정부지역건축사회/(031)876-0458
- 이천지역건축사회/(031)635-0545 · 평택지역건축사회/(031)657-6149
- 오산건축사회/(031)375-8648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36-0140
- 광주지역건축사회/(031)767-2204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 강릉지역건축사회/(033)652-0126 · 삼척지역건축사회/(033)631-8708
- 속초지역건축사회/(033)633-5080 · 영월지역건축사회/(033)374-2659
-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3-7230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4-2442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6
- 청주지역건축사회/(043)223-3084 · 옥천지역건축사회/(043)732-5752
- 제천지역건축사회/(043)643-3588 · 충주지역건축사회/(043)651-1587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 공주지역건축사회/(041)854-3355 · 보령지역건축사회/(041)934-3367
- 백제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서산지역건축사회/(041)681-4295
- 천안지역건축사회/(041)551-4551 · 홍성지역건축사회/(041)632-2755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3815 · 남원지역건축사회/(063)6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3)852-3796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667
-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1)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1)652-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1)365-6151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 경산지역건축사회/(053)812-8721 · 경주지역건축사회/(054)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432-6688 · 문경지역건축사회/(054)553-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4)535-8975 · 안동지역건축사회/(054)853-0244
- 영주지역건축사회/(054)634-5560 · 영천지역건축사회/(054)334-8256
- 철곡지역건축사회/(054)974-7025 · 포항지역건축사회/(054)244-6029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5-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5)943-6090
- 김해지역건축사회/(055)334-6644 · 마창지역건축사회/(055)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5)355-1323 · 사천지역건축사회/(055)833-9779
- 양산지역건축사회/(055)384-3050 · 진주지역건축사회/(055)741-6403
- 진해지역건축사회/(055)544-774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1-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9)883-4612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33-5501

“Architecture Asia”에 게재할 작품 모집

아카시아에서 발간하는 “Architecture Asia”잡지에서는 회원국들의 우수한 작품을 게재 홍보할 예정으로 9월과 12월의 출간을 위하여 아래의 주제와 관련된 작품을 모집하고 있다. “Architecture Asia”는 3개월마다 발간되며, 아카시아 전회원국에 배포되고 있다.

□ 모집부문

- 2002년 9월 : 호텔/리조트/레저시설 (작품제출기한 6월 30일)
- 2002년 12월 : 주거시설(작품제출기한 8월 15일)

□ 제출처

PAM 4&6 Jalan Tangsi, 50480 Kuala Lumpur, Malaysia
 담 당 : Ms Fay Cheah

1st World Wind Energy Conference and Exhibition

일시 : 2002. 7. 2 - 6
 장소 : 독일 베를린
 주최 : The World Wind Energy Association
 문의 : www.wip-munich.de
www.world-wind-conference.org
 E-mail : Wip@wip-munich.de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urban regeneration an sustainability

일시 : 2002. 7. 3 - 5
 장소 : 스페인 Segovia
 주최 : Wessex University
 참조 : www.wessex.ac.uk/conferences/2002/urs02/index.html

UIA Congress Pre-conferences(Essen)

일시 : 2002. 7. 19-21
 장소 : 독일 Essen
 주제 : The Ruhr Area - The Challenge of Change
 문의 : www.essen.de

UIA Congress Pre-conferences(Hamburg)

일시 : 2002. 7. 20-21
 장소 : 독일 Hamburg
 주제 : Architecture - Sustainability - Environment
 문의 : www.bda-hamburg.de

UIA Congress Pre-conferences(Leipzig/Dessau)

일시 : 2002. 7. 19-22
 장소 : 독일 Leipzig/Dessau
 주제 : Region in the Throes of Change
 문의 : www.uia.bda-sachsen.de

UIA Congress Pre-conferences(Munich)

일시 : 2002. 7. 19-21
 장소 : 독일 Munich
 주제 : The Quality of the City
 문의 : www.BDA-Bayern.de

UIA Congress Pre-conferences(Rhine-Main)

일시 : 2002. 7. 19-21
 장소 : 독일 Frankfurt, Darmstadt, Wiesbaden
 주제 : Resource Cityscape
 문의 : www.uia.bda-hessen.de

UIA Congress Pre-conferences(Rostock)

일시 : 2002. 7. 19-21
 장소 : 독일 Rostock
 주제 : Migration in Europe
 문의 : www.bda-mv.de

UIA Congress Pre-conferences(Stuttgart)

일시 : 2002. 7. 19-21
 장소 : 독일 stuttgart
 주제 : From Modernism to the European City
 문의 : www.weissenhof2002.de
 E-mail : info@congress-stuttgart.de

Busan Tower Complex 국제설계공모전

부산시는 부산을 상징하는 부산타워(부산 도심가의 중심지에 위치한 용두동의 꼭대기에 도시와 항구를 내려다보는 전망대)와 주변 복합시설을 재개발하여 역동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기념비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국제 아이디어 설계경기를 공모한다. 부산국제건축문화제 협회가 주최하며, UIA의 협력을 받아 진행되는 이 설계경기는 40세 이하의 젊은 건축가들을 참가 대상으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설계경기의 모든 공식언어는 영어로 통일한다. 제출서류(대지계획, 평면계획, 입면도, 단면도, 투시도, 스케치를 포함한 서류)는 A3용지 8매를 넘지 않도록 하며, 작품설명은 A4용지 4매 이내로 제한한다. 제출기간은 7월 20일까지이며, 참가희망자는 등록신청서 제출과 함께 등록비 US\$90를 지불하여야 한다. Busan

Tower Complex는 자연과 도시환경이 조화를 이루어 문화 휴양 시설 뿐만아니라 숙박시설로서의 기능을 갖추게 될 것이다.

- 참가자격: 40세 이하(196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의 모든 건축가
- 관련질의: 2002년 7월 20일 마감
- 참가작품접수: 2002년 9월 30일 마감
- 수상내역: 1등(1명)-미화 3만달러
 2등(1명)-미화 1만달러
 3등(1명)-미화 5천달러
 장려상(10명)-미화 각 5백달러
- 문의 : 051-241-0581 www.biacf.org

상 가 건 물 임 대 차 보 호 법

문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에게 최장 5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여 임대차관계 존속을 5년간 보장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건물주는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나요.

답1)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 사이에 임대료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경제 사정의 변동에 따라 임대료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 계약 당사자는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으로서 임대료 인상이 필요할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시행령에서 정하게 될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문2) 5년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것 인지요.

답2) 무조건 5년간 임대차관계 존속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①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② 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③ 쌍방 합의 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④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 ⑤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⑥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 ⑦ 임대인이 목적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 ⑧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문3) 상가임차인이려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요.

답3) 상가임차인중에서 일정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내고 입주한 상인만이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게 됩니다. 또한 월세 등 차임을 함께 내는 경우에는 이를 보증금으로 환산하여 보증금액에 포함시키게 되는데, 이때의 전환 비율도 시행령에서 정하게 됩니다. 앞으로

보증금의 범위와 전환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입니다.

문4) 동창회 사무실도 보호대상인가요.

답4) 법에서 상가건물만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동창회 사무실 등 비영리 단체의 건물임대차에는 이 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문5) 보증금외에 상가임차인의 권리금도 보호대상인가요.

답5) 거래관행상 권리금은 대부분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 수수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본법과는 무관합니다.

문6)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주택보다는 장기간인 5년간 보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6) 상가는 주택과는 달리 권리금이 수수되는 경우가 있고, 시설비가 투자됩니다. 이러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주택보다는 비교적 장기간 존속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문7) 상가임차인의 경우에도 주택임차인과 같이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가요.

답7) 상가임차인에게도 주택과 같이 일정한 임차인의 경우에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이른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영세상인에게에는 보증금이야말로 최소한의 생활의 터전이 되기 때문에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주려는 것입니다. 다만 보호대상 임차인 및 보호대상 보증금액은 시행령에서 정하게 됩니다.

문8) 상가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임차인이 시설비로 투자한 돈을 반환 받을 수 있는가요.

답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시설비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시설비를 투자한 결과 건물의 객관적 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민법상의 유익비상 환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시설비를 반환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9) 법 시행일이 2003년 1월 1일인데 법 공포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로 그 시행

시기를 정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으려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만 하고, 사업자등록 사항 중 일부는 이해관계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공시제도라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세청의 전산프로그램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2003. 1. 1.로 하게 된 것입니다.

문10) 최근 국세청에서는 임대료를 부당하게 과다 인상한 탈세혐의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는데, 조사대상의 선정기준은 어떠한가요.

답10) 국세청에서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릴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한 전국 5,000여 곳의 상가임대인에 대하여 5월중부터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① 세무서「임대료 부당인상자 신고센터」에 신고 접수된 자 중 탈세혐의가 있는 자
- ② 대도시 변화가, 수도권 등 중심상가의 임대인으로서 탈세혐의가 있는 자
- ③ 임대료 과다인상자 중 탈세혐의가 있는 자

문11) 2003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계약을 체결한 기존의 임차인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요.

답11) 기존의 임차인이라도 금년말까지 관할세무서로부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법 시행일로부터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계약갱신요구권은 법 시행일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됩니다.

문12) 이 법 시행전에 이미 상가건물에 대해 저당권 등을 설정한 담보권자는 법 시행에 따라 인정되는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때문에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 아닌가요.

답12) 이 법 부칙 제2조에서 법 시행 전에 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최우선변제권 등으로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13) 당사자간에 법률보다 불리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약정이 우선하게 되는가요.

답1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에서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보다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